

한국 수의(獸醫) 발달사(5)



경기도 수의사회 부회장

이시영

대한수의

조선시대의 수의(獸醫)서적들(1)

우리 나라에서는 과거부터 많은 책들을 펴냈다. 초기는 목판 인쇄를 하다가 후에는 나무로 활자를 만들어 사용하다가 어느 날부터 금속 활자를 만들어 책을 인쇄하였다. 말은 국방용으로 없어서는 아니 될 동물이기에 당연히 말에 관한 책들도 인쇄해서 배포하였다. 또한 임금이 직접 신하들에게 말에 관한 책을 지을 것을 명령하기도 하였다.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마의서(馬醫書)를 읽고 그것을 강해(講解)해야만 했다. 수의사는 목장에서 목자들에게 수의 기술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많은 책들이 나왔고 한자를 모르는 목자들을 위해서 언문으로 번역해서 나오기도 하였다. 많은 책들이 있었으나 현존하는 책들은 몇 가지가 되지 않는다. 실록이나 혹은 경국대전(經國大典) 등 조선조의 기록에 의해 알려진 책들은 말 병이나 말에 관한 책인 안기집(安驥集), 사냥을

위해서 사용하는 매에 관한 책인 응골방(鷹骨方; 고려말이나 조선조 초기만 해도 매 사냥이 아주 유행했으며 중국에 매를 보내는 것이 하나의 사대의 예이기도 하였기에 당연히 매에 관한 책이 발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수의서적의 하나인 말과 소의 질병치로서인 신편집성마의방우의방(新編集成馬醫方牛醫方), 중국에서 도입한 말의 질병치로서인 신각참보침의마경대전(新刻參補針醫馬經大典), 마경초집(馬經抄集)과 이를 언문으로 번역한 마경초집언해(馬經抄集諺解), 소와 말, 양 그리고 돼지의 전염병 치료방인 우마양저염역치료방(牛馬羊猪染疫治療方), 공사섭요(攻事攝要)의 마의방초(馬醫方抄)와 동인경험 목양편(牧養編), 그리고 공사섭요(牧養門)에서 수의 축산학적인 분야가 서술되어 있으며, 또한 청나라 사람 유본원(喻本元)과 유본형(喻本亨) 형제에 의해 쓰여진 신간찬도류방원형마료집(新刊纂圖類方元亨馬療集)등이 있다. 또한 정부나 민간에서 신편집성마의방

이나 마경초집언해의 유사형태의 마의방을 계속 발간하여 마경 혹은 마의방이라는 형태의 마의서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다. 또 이들 비슷한 내용들은 필사본으로도 전해지기도 한다. 현대의 수의공중보건학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는 산림경제(山林經濟)의 중독편(中毒篇)이나 공사섭요의 의약문에 따로 두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위에서 설명한 책들에 대해서 하나 하나에 대해서 역사적인 가치나 혹은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안기집(安驥集)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수의사(獸醫師; 馬醫)가 되기 위해서는 이 책을 강해해야만 했다. 아마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책이었기에 조선조 초기에 만들어진 경국대전에 마의의 시험과목으로 등장했을 것이다. 이 책은 성종25년(1494년) 4월에 승정원에 전하여 안기집과 수우경(水牛經)을 이창신(李昌臣) 이거(李據) 권오복(權五福)에게 명하여 번역케 하였다.

이에 의하면 "우마의 병을 치료하는 자는 천견(賤見)의 방(方)을 사용하고 본방(本方)을 오(傲)치 않는 고로 능히 치료지 못하고 혹 죽음에 이르니 급히 번역하여 중외에 반포하여 여항부로(閔巷父老)에 이르기까지 모두 알게" 하였으므로 그 당시에 곧 인쇄, 배포되었을 것이다. 이책의 서명은 송서(宋書) 예문지(藝文志)에 보이기도 한다. 수우경은 청나라의 사고전서총

목(四庫全書總目)에 채록된 그 당시의 중요한 수의서증의 하나이다. 당시 물소를 귀중히 여겼는데 이는 물소의 뿔은 화살을 만드는데 아주 유용하기에 조선조에서는 일부러 중국으로부터 물소를 도입하고자 노력하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한다.

현존하는 것이 없어 아쉽다. 만일 발견된다면 한국 최고의 수의서적으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신편집성마의방(新編集成馬醫方)

정종 원년(1399), 조선의 개국 공신들인 조준(趙浚), 김사형(金士衡), 권중화(權仲和), 한상교(韓尙教) 등이 전부터 전해지던 수의기술과 원나라의 비방(秘方), 그리고 우리 나라 사람들이 경험한 경험방등을 모아서 마의서를 편찬하였다. 그리고 그 서문은 당시 전의소감(典醫少監; 전의감에 속한 종4품의 벼슬로서 전의감의 다음 자리)과 지제생원사(知濟生院事; 각도에서 공납되는 약재를 관장하는 곳의 지사)이라는 벼슬을 하고 있던 방사량(房士良)이 썼다. 전의소감이 서문을 썼다는 것은 수의학이 의학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조선조 실록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전의감에 속한 사람들을 사복시에 파견해서 마의를 양성하는 기록들이 있기도 하다.

이 책은 초간 후 누차 복간되어 국내외에 유포되었으나 이제 국내에 전하는 것은 중종조 간본인 갑진자(甲辰字) 활자본(活

字本), 선조 13년의 전주판(全州版), 인조 11년의 제주판등이 알려져 있다. 또한 이서(李曙)가 편찬한 마경초집이나 마경언해(馬經諺解)도 그 내용은 신편집성마의방과 명나라의 마사문(馬師問)의 마경대전(馬經大典)을 초집(抄集) 언해한 것이며 전주판 간본은 임진왜란후 일본에 건너가 일어식으로 복각되어 조선우마의방(朝鮮牛馬醫方) 4책이 바로 이것이라고 한다.

고려의 사복시(司僕寺)에 수의(獸醫)박사라는 직제가 있었고, 조준등이 우마의방을 편찬하면서 서명에 신편집성의 4자를 붙인 점등으로 보아 조선조 이전부터 전해지던 수의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조선조 마의 시험과목으로 사용되었던 안기집이나 또 다른 책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일부학자들은 이 책이 향약제생집성방(鄕藥濟生集成方)과 우의방(牛醫方) 마의방(馬醫方)이 합간(合刊)되어 발간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로서 양촌집(陽村集; 權近의 문집)을 근거로 하고 있다.

향약제생집성방서(鄕藥濟生集成方序) - "醫藥以濟札仁政之一端也...左政丞平壤伯趙公浚 右政丞上洛伯金公士衡 上體聖心 請於國中 置濟生院...中樞金公希善 安掌其事 諸道亦置醫學院 分遣教授 施藥如之...乃與權公特命官藥局官吏考諸方 又採東人經驗者 分問類編 名之曰 鄕藥濟生集成方 附以牛馬醫方 而金中樞觀察江原 募工 梓 以廣其轉 ...洪武三十一年 蒼龍戊寅夏六月下幹" 향약제생집성방발(鄕藥濟生集成方拔) - "左政丞平壤伯趙公浚 右政丞上洛伯金公士衡...欲以廣濟 同知中樞金公希善 與之協力 置濟生院 ...又로牛馬之病 誤藥致死 爲集其醫方...建文紀元之勢 其書既成 而金中樞觀察江原 命工 梓 以壽厥傳 ...蒼龍己卯夏五月上旬有日" 이라는 두 가지 글이 있는데 위의 것은

정종원년 6월 하순에 향약제생집성방의 부록으로 우마의방을 발간했다고 하였으며, 아래 부분은 5월 상순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또한 윤병태(尹炳泰)교수나 한국한의학대계에게 해제를 쓰신 김신근(金信根)교수등은 신편집성마의방과 우의방은 향약제생집성방의 부록으로 발간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더욱이 김신근교수는 해제에서 "이 책은 정종 원년 6월 제생원에서 향약제생집성방 30권을 간행할 때 부간한 것으로,,,"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 책은 어떤 형태이건 우리 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수의학 서적이기에 한국마사회에서는 1976년도에 당시 제주 시험장장이던 신근철(申瑾澈)선생께 부탁하여 번역을 해서 한정본 200부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신근철선생은 고전한국마의방전서(古典韓國馬醫方典書)라고 이름 붙여진 번역서의 해제(解題)에서 신편집성마의방과 우의방이 향약제생집성방의 부록으로 발간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곧 향약제생집성방의 부록이었다는 주장의 논거는 양촌집중의 향약제생집성방 서문에는 분명히 "...名之曰鄕藥濟生集成方附以牛馬醫方.."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권근이 이 서문을 쓴 때는 "戊寅夏六月下幹"이고 동인의 동서 발문에는 우마의방에 언급이 없고 쓴 때는 "己卯夏五月上旬有日" 이다. 곧 서문을 쓴 때와 발문을 쓴 때와는 열 달의 차이가 있다. 즉 무인년과 기묘년간의 차이가 10개월이다. 한편 신편집성마의방과 우의방의 방사량서

문에는 향락제생집성방과의 관련기록이 없고 "己卯仲呂既望"이라고 해서 4월 16일이라고 정확히 일자까지 기록하고 있어 향락제생집성방보다도 반삭이 앞선 것으로 되어 있다." 단지 신근철씨가 주장하는 바 대로라면 권근선생이 발문을 쓴 때와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과 또 하나는 방사량이 서문을 쓸 때 향락제생집성방의 부록이었다면 응당 밝혔을 것이나 그런 구절이 일체 없다는 것이 수궁이 가는 대목이기도 하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한국인문과학원에서 출판한 한국한의학대계(韓國韓醫學大系) 제 50권에 신편집성마의방과 우의방이 우마양저염역치료방, 그리고 마경언해와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 봉천 화문제에서 영인한 것을 다시 영인한 것으로서 이 대본에는 서지학자나 신근철씨가 주장하는 蒼龍己卯仲呂既望으로 되어 있다. 이 책에 관해서 최근에도 일부학자들이 중령기망이라는 날자를 착오해서 발표한 경우도 있다.

신근철 선생이 사용한 대본은 제주간 복각판에다 오자 쫓자등은 마경초집언해나 전주 복각판 원형료마집등을 참고로 했다고 한다. 그분이 사용했다는 복사본도 없이 단지 그분이 전해준 원고에 의해서 발간된 고전한국마의방전서에도 기묘중령기망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이 향락제생집성방의 부록이나 아니냐는 것은 수의학이 의학의 한 분야로 인정했느냐 혹은 별개의 학문이었는가를 가

늑하게 된다. 신근철 선생의 주장대로라면 의학과 가까우면서도 별개의 학문으로 인정한 셈이 될 것이다. 단지 서문을 전의 소감이 쓴 것으로 보아서 의학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게 된다. 향락제생집성방의 부록이었다면 마의방이나 우의방이 의학의 한 분야로 인정되어 발간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신편집성마의방과 우의방은 신근철 선생 주장대로 처음에는 향락제생집성방의 부록으로 발간 할 계획이었으나 사정에 의해서 별도로 발간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만일 부록으로 발간되었다면 권근의 서문을 마의방에 그대로 표기했을 것이나 별도로 발간했기에 방사량으로 하여금 서문을 다시 쓰게 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수의학은 과연 의학의 한 분야였는가 아니면 별도의 학문으로 인정했는가는 아주 어려운 일이겠으나 조선 왕조 실록에 이와 비슷한 기록이 있기에 소개하는 바이다. 세종 12년(1430년) 3월 18일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상정소(詳定所)에서 여러 학문의 취재에 있어서 경서와 여러 기예의 수목에 대하여 아뢰기를 유학(儒學)은.... 무학(武學)은.... 한이학(漢吏學)은... 자학(字學)은... 역학(易學)은... 음양학(陰陽學)은... 의학(醫學)은 의학직지(醫學直指) 맥찬도(脈纂圖) 맥직지방(脈直指方) 화제방(和劑方) 상한류서(傷寒類書) 화제지남(和劑指南) 의방집성(醫方集成) 어약원방(御藥院方) 제생방(濟

生方) 제생발수방(濟生拔粹方) 쌍종처사
활인서(雙鍾處士活人書) 연의초본(衍義草
本)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침구경(鍼灸
經) 보주동인경(補註銅人經) 난경(難經)
소문(素問) 팔성제총목(括聖濟總錄) 위씨
득효방(危氏得效方) 두씨전영(竇氏全瓊)
부인대전(婦人大典) 서죽당방(瑞竹堂方)
백일선방(百一選方) 천금익방(千金翼方)
우마의방(牛馬醫方)이요 약학(藥學)은...
산학(算學)은... 율학(律學)은.... 하고 보고
하니 그대로 따르니라"

위에 나열된 것은 당시 우리 사회에 나돌
던 의학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분명히 우마의방은 의학의 한 부류라고
상정소에서 정하고 있다. 그 결과 전의감과
사복시와는 항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
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전
의감의 의사들이 사복시의 마의 양성관으
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조선조 초기인 태종 13년 8월 6일의 조선
왕조 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혜민국(惠民局) 조교 김경진(金敬珍)등 4
인을 사복시에 속하게 하여 마의방을 익
히도록 명하였다. 그 천전 출신은 선공감
권지직장의 예에 의하게 하였다."는 것이
다. 즉 혜민국에서 조교생활을 하고 있던
4인을 사복시에 파견해서 마의방을 익히
도록 조치한 것은 같은 의학분야라는 것
을 암시하여 주는 기록이기도 하다.

또 다른 구절인 세종 9년 2월 6일에는 예
조(禮曹)에서 임금에게 건의하기를 "우마
의방서를 전의감(典醫監)의 의원으로 하

여금 모두 익히게 하고 사복시의 마방(馬
方)을 혁파(革罷)하고 습득하던 권지직장
(權知直長)은 각 관사의 권지로 나누어
소속시키소서"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대목이 있다. 아마 사복시의 마
의를 공부하던 사람들이 게으름을 피웠는
가 보다. 그래서 별로 관계가 없는 예조에
서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나 전의감의 의원
으로 하여금 읽도록 해서 말 병이나 소의
병을 치료하라는 뜻이다. 이는 역시 전의
서나 사복시의 마의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구절이기도 하다.
즉 같은 의학을 다루면서 사람은 전의감
에서 다루고, 말은 사복시에서 다루는 것
이 오늘날 수의사는 농림부에서, 의사는
보건사회부에서 다루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다. 우의방이나 마의방
도 의서의 하나로 취급되었기에 전의소감
인 방사량이 서문을 쓴 것이 아닌가 하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어찌 되었던 이 책은 우리 수의서적으로
가장 오래된 서적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수의역사를 간접
적으로 알 수 있기도 하다. 수의박사라는
제도가 고려조 문종때 이미 있었다고 전
편에서 기술하였는데 이 책의 내용에 동
인경침방이라는 것은 고려인들이 이미 사
용했다는 처방을 기록한 것이다. 이 책의
집필자들인 조준 김사형 권중화 한상교등
은 모두가 고려말의 중신이었으며 그들이
이 책을 집필 편찬하였다는 것은 고려시
대의 수의학적지식을 모았다고 할 수 있

다. 특히 서문을 쓴 방사량은 고려조 공양왕때의 전의사승(典醫司丞)이었던 것을 미루어 볼 때 이 책이 고려시대에 응용되던 말과 소의 치료법을 기초로 하여 편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인경험방을 따로 둔 것으로 보아 당시 중국에서 전래된 수의학적 지식이 주로 편집되었다고도 추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신편집성마의방에 수록된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점통론(點痛論; 점과 통의 관계를 논함)
 강아론(薑芽論; 강아병을 논함)
 혼정충론(混睛蟲論; 안방의 혼정충을 논함)
 호골파과론(胡骨把骨論)
 찰구색론(察口色論; 구색의 관찰) 십팔대병(十八大病)
 양마상도(良馬相圖; 양마 상보는 그림)
 양마선모도(良馬旋毛圖; 좋은 말 가마 그림)
 상모선가(相毛旋歌; 상과 가마의 노래) 수요(壽夭; 목숨)
 변노마형상도(辨駮馬形狀圖; 나쁜 말 그림)
 상치지도(相齒之圖; 이빨로 나이 아는 그림)
 방혈법(防血法; 사혈하는 것)
 상마첩법(相馬捷法; 빠름을 아는 법) 양마법(養馬法)
 사부마령부투지법(飼父馬令不鬪之法)
 사정마령견실지법(飼征馬令硬實之法)
 동인경험목양지법(東人經驗牧養之法)
 오로론(五勞論; 다섯가지 피로한 병)
 칠상(七傷; 일곱가지 상병)
 삼십사마병상도병약(三十四馬病狀圖并藥; 34가지말병의 그림과 약)
 전결기와(前結起臥)병원가 후결기와(後結起臥) 병원가
 열통기와(熱痛起臥)병원가 냉통기와(冷痛起臥)병원가
 소장결기와(小腸結起臥)병원가
 수곡병기와(水穀病起臥)병원가
 나격손기와(羅隔損起臥)병원가
 마장황기와(馬腸黃起臥)병원가
 흑한기와(黑汗起臥)병원가 비기기와(脾氣起臥)병원가
 심황기와(心黃起臥)병원가 신황기와(腎黃起臥)병원가
 기통기와(氣痛起臥)병원가 뇌황기와(腦黃起臥)병원가
 포전기와(胞轉起臥)병원가 초일기와(草壹起臥)병원가

- 내신손기와(內腎損起臥)병원가
 장단기와(腸斷起臥)병원가
 장입음기와(腸入陰起臥)병원가
 대두결기와(大肚結起臥)병원가
 육단기와(肉斷起臥)병원가
 수락간기와(水掠肝起臥)병원가
 나격상기와(羅隔傷起臥)병원가
 판장분부전(板腸糞不轉)병원가
 수일기와(水噎起臥)병원가 육발기와(肉鼈起臥)병원가
 비충교심기와(碑蟲咬壽起臥)병원가
 축저오찬통기와(蹙蹙五攢痛起臥)병원가
 폐통기와(肺痛起臥)병원가
 대두상기와(大肚傷起臥)병원가
 심통기와(心痛起臥)병원가 신통기와(腎痛起臥)병원가
 깍수상장위기와(喫水傷腸胃起臥)병원
 중결기와(中結起臥)병원가

기와(起臥)라는 것은 말이 통증으로 일어났다 누었다하는 형상을 말한다. 여기에서 병원가라고 하는 것은 옛부터 말의 병에 대하여 노래로 불러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 | | | |
|--------------|------------|--------------|
| 진후마병맥(診候馬病脈) | 골명지도(骨名之圖) | 혈명지도(穴名之圖) |
| 백락침경(伯樂針經) | 마본명월(馬本命月) | 육양육음도(六陽六陰圖) |
| 풍문(風門) | 오장한(五臟汗) | 오장황(五臟黃) |
| 제황문(諸黃門) | 골안문(骨眼門) | 제열문(諸熱門) |
| 온역문(溫疫門) | 온역문(溫疫門) | 비상문(鼻頰門) |
| 제창문(諸瘡門) | 온역문(溫疫門) | 후종문(喉腫門) |
| 타파문(打破門) | 온역문(溫疫門) | 소제문(瘡蹄門) |
| 개창문(疥瘡門) | 온역문(溫疫門) | 잡병문(雜病門) |

우의방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상우법(相牛法) 선택조우창길지론(選擇造牛廠吉地論)
 양우잡기론(養牛雜忌論)
 개조우창이편년월일론(蓋造牛廠利便年月日論)
 상우형상급모색론(相牛形狀及毛色論) 온역문(溫疫門)

안병문(眼病門)

구설병문(口舌病門)

심병문(心病門)

해수문(咳嗽門)

분혈문(糞血門)

뇨혈문(尿血門)

부중서(附中書)

개병문(疥病門)

제병문(蹄病門)

비병문(鼻病門)

인후병문(咽喉病門)

폐병문(肺病門)

창병문(脹病門)

부사리(附瀉痢)

중악문(中惡門)

수병문(瘦病門)

산병문(産病門)

잡병문(雜病門)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수의학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 책의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만 하는 병이 있다. 목록에서 혼정충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오늘날 안방충(眼房蟲)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미 전호에서 설명했기에 생략하는 바이다. 이상의 목록중에 동인경험방이라고 밝힌 부분은 마의방에서 다음과 같다.

동인경험목양법(東人經驗牧養法)

동인경험방 국출산(麴出散),

치마비위부조설사(治馬脾胃不調泄瀉)

동인경험, 치장만방(治腸澇方)

동인경험, 치마개(治馬疥)이며, 우의방에서는 동인경험 치졸천수(治卒喘嗽)가 있다.

우마양저염역치료방(牛馬羊猪染疫治療方)

이 책은 최초의 가축전염병학 책이다. 최초로 발간된 것은 중종 36년(1541년) 11월 25일에 교서관(校書館)에서 활자로 찍은 책이 있다는 것은 선조 11년(1578년) 정월에 하사한 활자본인 을해자본의 머리에 있는 임금의 하사품이라는 것을 도승지의 글에서 볼 수 있다. "萬曆 六年正月 日 內

賜行副護軍李仲樞牛馬羊猪染疫治療方一件命除謝恩都承旨臣尹" 1578년 정월에 왕이 이 책을 부호군 이증량에게 하사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 책은 1541년 11월 25일에 교서관에서 활자로 찍었다는 것을 좌승지 권응창의 글에서 알 수 있으며 이 책을 만들게 된 동기는 평안도 관찰사 상진(尙震)의 서장에 의하면 금년 봄에 평안도에서 우역(牛疫)이 심해서 많은 소들이 죽었기에 이를 치료하는 방법을 알고자 하는데서 연유한다.

"教內節該事知理馬乙 用良相當藥材上下費特刻日下送隨方治療爲白乎牟....啓下 是白有亦今年春節分本道 牛疫大熾 多致染斃爲 白去乙曹以治療之法醫方相考...令醫司藥理 文字通解醫員等 擇定上項 諸畜染疫治療方文乙 吏讀諺文爲等如 兩件解釋藥名乙 良置鄉名 以書寫成冊 令校書館 十九件刻日印出 十件乙兩本曹 及典牲署 司畜署 五部 典醫監 惠民署爲等如分上九件乙良開城府 及八道急送分送 令各道即時刻版 多印分送于各官染疫...嘉靖二十年十一月二十五日 左承旨 臣權應昌次知 啓依允" 이는 현재의 우리 한자들과 다른 이두(吏讀)문자들이 사용된 것이다. 본 도에 우역이 크게 번져서 많은 소들이 죽었다는 것과 이의 치료를 위해서 의학과 약리 그리고 문자를 아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가축의 전염병 치료방을 만들었는데 이두문자나 언문으로도 해석하여 책을 이루어 모두 19부를 찍어서 병조(兵曹)와 전생서(典牲署) 사축서(司畜署) 오부(五部) 전의감(典醫

대한수의사

監) 혜민서(惠民署)등에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각도에 나누어서 빨리 인쇄하여 널리 펴라고 했다.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 이마가 등장하고 그외 의학이나 약리학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약초를 아는 사람들이 동원되어 만든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이책을 반포 대상기관도 축산분야인 병조와 전생서 사축서 그리고 오부 외에도 의학과 관련된 전의감이나 혜민서에도 반포한 것으로 보아서 수의학도 의학의 한 분파로 보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당시는 말은 사복사에서 관장했고 주로 군사용으로 사용되었기에 말의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를 위해서 군대에 이 책을 보내는 장면이 바로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선조의 하사로서 부호군 이중량에게 이 책을 내려보내 말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후 1542년경 8도의 관찰영에서 간행한 목판본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외 1578년 정월의 하사본등이 알려져 있다. 이 책의 권수제(券首題)는 우마양저염역 치료방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한글로 "쇼며 물이며 양이며 도티며서 무던염하늘는 병고티는 방문이라"라고 언해하고 있다. 내용에 있어서도 서언에서 밝혔듯이 이두나 언문으로 해석하여 마경언해와 비슷한 체제이다. 이 책은 서문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지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여러 책들에서 발췌한 내용들이다. 즉 본초(本草), 우마의방(牛馬醫方),

신은(神隱), 사림광기(事林廣記), 편민도찬(便民圖纂), 산거사요(山居四要)등에서 가축의 전염병에 대해 기술한 것을 옮겨 놓은 것이다. 이를 볼 때 당시에 이미 이러한 도서들이 마의를 관장하는 사복사나 전의서에 비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책도 그후 계속 복간되어 1636년 해주 목에서 개간한 목판본이 있으며, 1636년 9월 교서관에서 활자본으로 인쇄한 것이 있는데 이 책에는 최명길이 쓴 우역방후발(牛疫方後拔)이 알려져 있다. 우역방후발 "今上十四年丙子夏 平安黃海兩道 牛疫大熾 至秋猶不止 延入京畿 以及湖西 朝廷患之 工曹參判尹毅立 出其先人所藏 內賜諺解馬牛治療方一冊 乃嘉靖二十年 奉教撰者 萬曆六年 又因牛疫 再刊以頒者也 司僕寺提調李曙 見大喜 具由以聞 上即付校書館.....臣鳴吉時 校書提調..... 崇禎九年九月十七日...完城君崔鳴吉書"

이를 보면 최명길이 교서관 제조로 있을 때 활자로 인쇄하여 나누어주었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染염疫역병은 하나알코들세얹파서 무던염하늘 병이라(염역병은 하나가 앓으면 두 마리나 세 마리가 아파서 서로 전염하는 병이라)

〈本草〉

- 치우마시역병(治牛馬時疫病)
- 치우역고창(治牛疫孤脹)
- 우역질(牛疫疾)
- 치우역고두미(治牛疫孤頭尾)

- 치우마백병(治牛馬百病)
- 치우상열(治牛傷熱)
- 치우분혈자(治牛糞血者)
- 〈牛馬醫方〉
- 치우마시역(治牛馬時疫)
- 구법우마역초발시(灸法牛馬疫初發時)
- 〈神隱〉
- 치우장(治牛瘡)
- 〈便民圖纂〉
- 치우장역(治牛瘡疫)
- 치수우온역(治水牛溫疫)
- 치우졸역(治牛卒疫)
- 〈山居四要〉 · 양구고작일(羊廐高作日)
- 〈事林廣記〉 · 치저장병(治猪瘡病)
- 〈便民圖纂〉 · 치저병(治猪病)

이 책은 목록에서 보는 대로 소의 전염병 치료를 위한 것이 13개이며 이중 하나는 물소의 전염병 치료방이다. 말에 대해서는 소와 말을 함께 취급한 것이 4개이며, 양에 대해서는 1개, 돼지에 대해서는 2개로 이루어져 있으나 각 편에는 몇 개의 방문이 소개되어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치우역고두미의 경우 6개의 치료방이 소개되어 있기도 하다. 다른 경우는 다른 책의 방문을 인용하였는데 돼지의 전염병에 대해서는 사림광기의 치료방이 하나 소개되어 있으며, 다음에 편민도찬의 치료방이 소개되어 있다.

(李始永; 경마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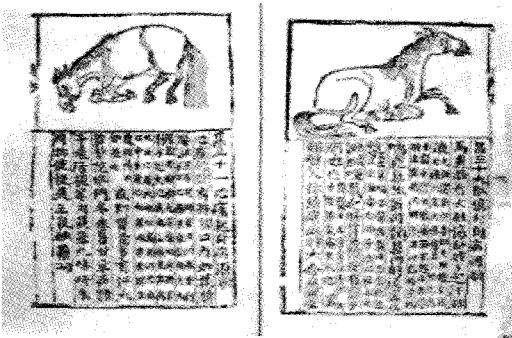


그림1) 산편집성마의방의 일부 : 말의 증상을 그림으로 그리고 하단에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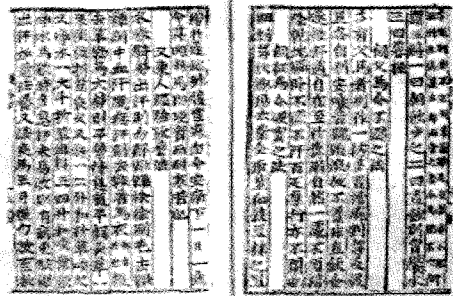


그림2) 마의방의 일부: 동인경험목양법이라는 제목이 보이는데 이는 우리나라사람들이 터득한 수의지식을 수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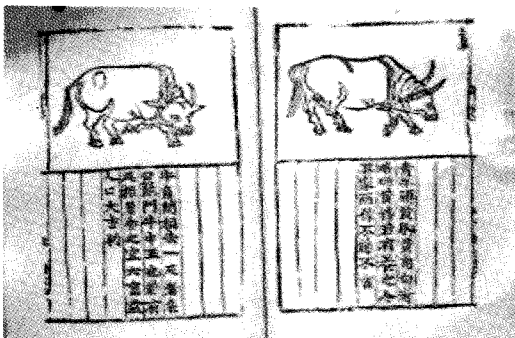


그림3) 우리방의 일부: 병든 소의 증상을 그림으로 그리고 하단에는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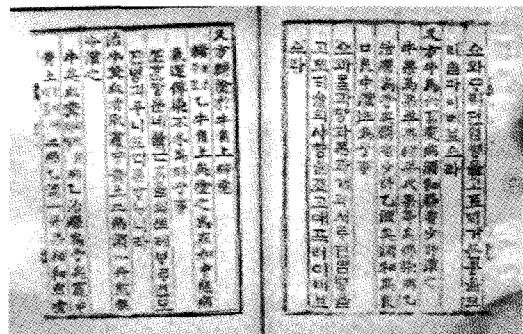


그림4) 우마양저염역치료방의 일부: 한문이 먼저 쓰여져 있고 한글로 번역.